

# 한국드라마, 일본에 '정시착' ... "3차 한류 재점화"

tvN '사랑의 불시착'과 JTBC '이태원 클라쓰'의 일본 내 열기가 심상치 않다.

주연 배우가 잡지 표지 모델로 발탁되고, 일본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상평을 나누는 등 2004년 '겨울연가'의 열풍을 재연하는 모양새다.

일부 드라마만 반짝 흥행하는 수준을 넘어, 2-3년 전부터 불어온 소비재 위주의 '3차 한류'가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제2의 열풍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사랑의 불시착'·'이태원 클라쓰' 일본서 쌍끌이 흥행

아시아신문은 지난 16일 "한류 드라마 열풍이 재연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가 열풍을 견인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 2월 16일 넷플릭스에서 전 회차가 동시 공개된 뒤 줄곧 상

의 뼈대에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넷플릭스 타고 '3차 한류' 재점화... "K콘텐츠 경쟁력 갖춰야"

한국 드라마 인기 배경으로는 일본에서 두 드라마가 유통된 플랫폼, 넷플릭스의 역할이 가장 먼저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보포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기준 일본의 SVOD(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시장에서 점유율 13.8%를 차지하며 플랫폼 1위로 올라섰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생활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지상파 NHK에서 '겨울연가'가 방송되던 당시와 차이점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작품 하나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전



'이태원 클라쓰'



## '국민예능' 인기 '개콘' 21년만에 '추억속으로' 시청자·개그맨들 아쉬움 속 종영

"여러분 추억 속에 이만큼이라도 '개콘'이 함께 한다면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주세요. 개그콘서트 포에버!" (윤형민)

일요일 밤 시간대 온 가족의 웃음을 책임졌던 KBS 2TV 공개 코미디 '개그콘서트'가 21년 만에 막을 내렸다.

2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 방송한 '개그콘서트' 1050회 시청률은 3.0%로 집계됐다. 최근 줄곧 벗어나지 못한 2%대에서 소폭이나마 오른 수치다.

마지막 회답게 '개그콘서트' 전성기에 출연했던 개그맨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영을 개그 소재로 활용하는 등 최종회에 어울리는 풍토를 선보였다. 종영을 죽 음에 빛낸 장례식장 상황극 '마지막 세코나'에선 김태희, 신봉선, 박성호, 김원호, 박성광 등 반가운 얼굴들이 유행어를 다시 선보이며 추억을 자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떠들썩한 관객은 없었지만 영상 편지로 시청자와 소통하려 했고, '시청률의 제왕' '골사랑' '네가지' 등 과거 인기 코너는 현재 버전으로 재탄생시켰다. 개그맨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마음을 끝내 감추지 못했다. 박준형은 울컥한 표정으로 마지막 '갈갈이 쇼'를 보여줬다. 졸업식으로 꾸며진 '봉숭아 학당' 피날레로 이태선 밴드가 등장하자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타까운 심정을 남기기도 했다.

박준형은 "'(개그콘서트)'는 아름다웠던 내青春的 한편에 정말 크게 자리 잡았던 친구... 덕분에 찬란했다"라고 밝혔고, 박성광 또한 "이제 보내주려다. 안녕. 개그콘서트"라고 시원섭섭한 작별 인사했다.

김숙은 '개그콘서트' 시절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쉽고 고맙고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개그콘서트'는 2000년대 초 시청률 30%에 근접하며 '국민 예능'으로 불렸지만, 공개 코미디 포맷 자체가 시들해지고 외모·여성 비하를 버리지 못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침체기를 맞았다.

KBS는 지난달 "달라진 방송 환경과 코미디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변신을 위해 '개그콘서트'가 잠시 휴식을 갖는다"며 사실상 종영을 선언했다.

## '사랑의 불시착'·'이태원 클라쓰' 넷플릭스 타고 일본서 쌍끌이 흥행 "K팝 이어 기존 한류 팬보다 다양한 세대·성별로 이어진 확장성 주목"

위권을 차지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작품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일본 최대 리뷰 사이트 '필마크'(Filmmarks)에서 5점 만점에 무려 4.6점을 기록했다. 2016년 일본 TBS에서 방송돼 사회적 신드롬까지 일으킨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4.2점)보다도 높은 기록이다.

특히 고정관념을 뒤집는 북한군 장교 리정혁 캐릭터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지지가 눈에 띈다. 잘 나가는 재벌 상속녀 윤세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리정혁에 대해 일각에선 '포스트 미투(Me Too) 시대의 히어로'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일본에서 한국판, 청춘판 '한자와 나오키'(半澤直樹)로 불린다. '한자와 나오키'는 2013년 일본에서 시청률 40%를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히트 드라마로, 신념으로 뚫을 뚫친 은행원 주인공 한자와가 조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렸다.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임에 이르게 한 거대 조직에 대해 복수를 품고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든다는 점에서 '이태원 클라쓰'와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지녔다.

현지에선 일본 정서에 걸맞은 비즈니스 복수극

반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가 촉발한 한국 드라마 붐이 일본의 '3차 한류'를 다시 점화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내 한류 흐름은 2000년대 초 '겨울연가'와 배우준이 일으킨 '1차 한류', 2010년께 동방신기 등 K팝이 주축이 된 '2차 한류', 2018년부터 시작된 한국 화장품과 치즈닭갈비 등 소비재 중심의 '3차 한류'로 나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황선혜 일본 비즈니스센터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얼마나 할머니가 '겨울연가'에 빠진 걸 보면서 한류에 대한 친근감이 있었지만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콘서트 티켓을 살 만한 경제력은 없었다. 값싼 소비재 위주로 즐기던 이 세대가 한국 콘텐츠에 빠진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이어 "한류에 친근감을 가졌고 K팝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정착하고, 지금은 기존 한류와 전혀 상관없는 세대·성별로까지 확대가 됐다"며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쓰'로 시작된 관심이 '더 킹', '킹덤', 'SKY 캐슬'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짚었다.



'사랑의 불시착'

## 블랙핑크,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 2위...K팝 최고기록

그들 블랙핑크(사진) 신곡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역대 K팝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매된 블랙핑크 정규 1집 선공개 싱글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이 28일 자(미국 현지시간 기준)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톱 50'은 세계에서 발매된 음원 가운데 일간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차트다.

블랙핑크의 이번 기록은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세운 자신들의 종

전 기록(5위)을 경신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이 차트에서 세운 역대 K팝 최고 순위(3위)보다도 한 계단 높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스포티파이 미국 톱 50 차트에서도 8위에 올랐다.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서 10위권에 든 것은 협업곡이 아닌 자신들의 단독 싱글로는 처음이다.

블랙핑크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지난해 '킬 디스 러브'로 41위를 기록했고 레디디 가가와 함께 부른 '사위 캔디'로 이달 초 33위까지 올랐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의 현재 기세를 감안하면 종전 성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b>(유)신 화 로 프</b>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처리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b>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b>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b>비 비 가</b>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김밥·김치·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떡볶이·떡갈비 ☎ 062)229-1008, 010-8572-0999	<b>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b>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빌라·주택·상가·토지·임야·매매·전월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b>동 양 철 학 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b>고 전 방</b>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	<b>킨 타로카드</b>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 (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b>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b> 나주시 영산포로184-1 (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b>뮤엄영어동림캠퍼스</b>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b>석 당 화 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b>초 대 화 랑</b>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b>장 어 수 산</b> 북구 서암대로 88 (신안다리아) 무항생제 장어 사용 포장배달·전국 택배 배송, 선물 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b>신 신 예 술 의 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b>한 성 꽃 화 원</b>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단과,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b>만 복 당</b>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b>자 연 모 기 발 안 병 원 헤 어 샵</b> 동구 롯데백화점 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개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b>박 당 화 랑</b>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b>우 리 식 당</b>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b>개 성 전 통 한 방 삼 계 탕</b>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b>천 상 일 월 태 주 명</b> 나주시 남동동 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